

직업으로서의 소설가

무라카미 하루키 지음, 양윤옥 옮김, 현대문학

저자 소개 무라카미 하루키

일본의 작가로 1949년 생. 대학 중에 결혼하여 1974년부터 7여년 동안 아내와 재즈 카페를 운영하다가 어느 날 가게 주방 식탁에 앉아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. 이 생애 최초의 소설 <바람의 노래를 들어라>로 1979년 <군조>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등단. 1987년에 발표한 <노르웨이 숲>은 일본문화계에서 ‘무라카미 신드롬’을 일으키면서 이를 계기로 단단한 핵심 독자층이 형성되었다.

일본을 넘어 아시아를 비롯한 미국, 유럽, 러시아까지 총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장기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을 확고히 했다.

소설을 쓴다는 것

- 효율성이 떨어지는 작업이다. **수없이 반복하는 작업**이다.
- 엄청 손이 많이 가면서 한없이 음침한 일.
- 소설 한 편을 써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. 그러나 **소설을 지속적으로 써낸다는 것**은 상당히 어렵다. 누구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. 특별한 자격 같은 것이 필요. 아마도 ‘재능’과는 다르다.

작가의 삶

- 재즈 카페를 할 때, 여기저기 빌린 돈을 이자를 쳐서 갚느라 아주 검소하게 스파르타처럼 살다. 집에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없고 자명종조차 없었던, 그 사이 사회를 배웠다.
- 아침부터 밤까지 육체노동을 하고 빚을 갚는 일로 이십대를 지새웠다.
- 청소년기 열심히 책을 읽다. 음악을 쏟아붓다, 이십대에도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어도 책을 읽고 음악을 듣다. 공부는 그렇게 잘 하지 못했지만 영어책을 많이 읽다.
- 좋아하는 일, 흥미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철저하게 파고드는 성격

자신의 문체를 찾다

- 새로운 언어와 문체
- 외국어 창작을 통해 새로운 문체 고안

- 형가리 작가 아고타 크리스토프가 프랑스어로 소설을 쓰기 짧은 문장을 조합하는 리듬감, 번거롭게 꼬지 않는 솔직한 말투, 자신의 감정이 담기지 않은 적확한 묘사

즐거워서 하는 일

- 문장을 만드는 일의 ‘**기분 좋음, 즐거움**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. 행복하다.
- 그러나 그의 작품은 일본의 문예비평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비판을 받아왔다는 사실.
- 일본에서는 그다지 보통이 아닌 것, 남들과 다른 것을 보면 수많은 네거티브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.
- 외국에서 생활함
- 삼십 오년 동안 소설을 써왔지만 슬럼프가 없었다. 쓰기 싫을 때는 번역을 함.

소설가가 되기 위해서

- 책을 많이 읽는 것. 짧은 시절에는 **닥치는 대로 읽는 것**, 이것이 기초체력이 됨.
- 원재료를 많이 저장해둘 여지를 마련한다. 기억 속에 담아두는 것
- 제임스 조이스 ‘상상력이란 기억이다’
- 약간의 시점을 바꾸면, **발상을 전환하면, 소재는 당신 주위에 얼마든지 굴러난다.**

시간을 내편으로 만든다

- 노르웨이의 숲 유럽 체제 중에 쓰다
- 하루에 200자 원고지 20매를 규칙으로 삼는다. 장기적인 일에 규칙성이 중요함
- 초고가 완성되면 첫 번째 고쳐 쓰기, 한두 달 진행
- 일주일 쯤 쉬었다가 두 번째 고쳐 쓰기, 세세한 부분을 살핌
- 세 번째 고쳐 쓰기. 수정에 가까운 작업
- 한 달 정도 작품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잊어버리려 노력한다. 그리고 다시 세세한 부분의 철저한 고쳐 쓰기
- 제 삼자 의견 듣고 수정하기, 교정지 단계에서 수도 없이 고치기
- 하루 다섯 시간 책상에 마주앉아 강한 마음 유지, 규칙적인 운동